

대학생의 독서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 D대학교 신입생 독서실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ading Education Method of University Student

이 만 수 (Lee, Man-Soo)**

<목 차>

- | | |
|----------------|----------------------|
| I. 서론 | 2. 독서와 대학생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III. 자료 조사 및 분석 |
|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 IV. 대학생과 독서교육에 대한 논의 |
| II. 대학생과 독서 | V. 결론 |
| 1. 독서교육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D대학교 신입생들의 독서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대학생의 독서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독서교육 방안으로 중앙도서관의 각종 행사 개최, 관련학과의 독서교육 과목 채택, 독서인증제 도입, 필독도서목록 작성, 독서 교양과목 학점 인정, 매체를 통한 독서교육, 독서의 필수과목 채택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독서교육, 대학생 독서교육, 독서인증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reading education methods and searchable reading of new student of D University.

This study bring forth variety event of central library, adoption of reading education subject, induction of reading certification, draw up of must book catalogue, accrediting system of reading cultural studies, reading education via media, adoption of a required subject of reading, and so on for reading education methods.

Key Words : reading education, university student reading education, reading certification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mslee@daejin.ac.kr)

· 접수일 : 2004. 2. 22 · 최초심사일 : 2004. 3. 3 · 최종심사일 : 2004. 3. 8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독서는 우리들에게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판단력과 비판력을 길러준다. 특히 독서를 통하여 폭넓은 경험을 가진 대학생은 미경험이 세계를 향해 폭넓고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삶에 대해 자신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정확한 판단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치관 형성 시기에 있는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독서의 관계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논의 되고 있는 것은 그 중요성이 실로 크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학교도서관은 교사에 의하여 인도하는 학교학습(Guided learning)을 넘어서서 스스로 선택하고 조직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Do-It-Yourself Learning)¹⁾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 교육은 지식의 전달에 치중하여 교육 본질적 측면에서 이탈하여 교과서 위주, 입시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 풍토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하더라도 학술과 연구의 목적인 대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들의 독서 실태를 조사하여 대학생들의 독서교육 방안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독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필요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양과 올바른 비판력을 길러준다. 독서를 통하여 폭넓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미경험의 세계를 향해 폭넓고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삶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정확한 판단으로 문제 해결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독서의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청소년들과 독서의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 한 두 사람에 의해 논의된 것도 아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크게 발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독서란 그것이 바로 교육이며,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 바로 교육 자체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 교육은 지식의 전달에 치중,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탈하여 교과서 위주 내지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풍토에서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청소년들이 독서를 하는 경향도 체계적인 자아 형성에 두기 보

1) 한윤옥,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의 역할”,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연구자료 RM 2002-15, 2002. p.5.

다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독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 신입생들의 독서 실태를 조사하여 독서생활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 합리적 독서 교육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 교양, 경험을 좀더 많이 쌓아가려는 데서 출발되어진다.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따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별도로 지도하여야 하는 사회가 현실이다. 이러한 지도가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본 연구는 효율적인 독서 지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D대학교 신입생들의 독서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바람직한 독서지도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내용은 D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여가이용, 독서경향, 도서입수, 중앙도서관 이용, TV 독서 프로그램, 독서 장려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여 독서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 1) 연구대상으로 D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 학생의 독서교육 방법으로 확대 적용시키는 데는 미흡하다고 본다.
- 2) 설문 대상 학생을 각 대학별로 동일하게 하지 않아 전공에 따른 독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다.

II. 대학생과 독서

1. 독서교육

독서는 글 전체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²⁾ 즉 글자를 읽고 그 결과로 인

2) 노명완, “독서개념의 현대적 조명,” 독서연구, 창간호, 1997. pp.63-65.

간 내면의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독서는 글이나 책을 읽고서 마음이나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변화를 일으켜야만 바람직한 독서라 할 수 있다.

독서는 인간의 경험, 감정, 생각 등을 기록한 책의 내용을 보거나 의미를 이해하거나 살피는 정신적 행동이다.³⁾

미국 백과사전(The Encyclopedia Americana)에서는 literacy와 reading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리터러시는 ‘이름이나 기호를 부르고 읽고 쓸 수 있으면 되는 정도의 능력인 독해정도’의 뜻이다.⁴⁾ 독서는 ‘인쇄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를 얻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⁵⁾로 글자에 대한 의미보다는 글 전체에 대한 뜻을 파악하려는 활동이다. 맬로우(Mallow)⁶⁾는 독서를 읽고 쓰는 능력을 함축시키는 기술과 저자가 저술한 내용을 독자가 인간 본연의 자세에서 되풀이하는 과정으로 보고, 독서를 생활교육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방법과 논문, 교과서를 읽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가네(Gagne)⁷⁾는 ‘독서가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발휘하고 삶을 가장 깊이 있게 음미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독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

독서교육이라고 하면 독서지도란 개념과는 다르게 보아야 옳다고 본다. 독서지도란 개념이 곧 독서교육이 아니라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독서지도가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독서교육이나 독서지도 문제를 모두 책 읽는 안내 또는 지도하는 것을 독서교육으로 생각하면서 독서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독서교육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행동은 책을 읽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독서발표를 해야 한다. 읽으면서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읽은 책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독서법이라 할 수 있다. 혼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독서결과를 서로 토론할 때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토론 중에 생각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므로 독서토론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정리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토론하면서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을 때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을 조리 있게 기록하게 된다면 완전히 자기 사상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3) 중앙대학교도서관, 대학생활과 도서관,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1993), p.27.

4) Jean E. Spencer. "literacy," The Encyclopedia Americana, 30h ed. New York: Grolier Incorporated, 1994. Vol.17. p.559

5) John G. Murphy. "illiteracy," The Encyclopedia Americana, 30h ed. New York: Grolier Incorporated, 1994. Vol.17. p.775.

6) Jeffry V. Mallow. "Reading science," Journal of Reading, Vol.34, No.34, February, 1991. pp.338-339.

7) Ellen D. Gagne. 인지심리와 교수-학습, 이용남 외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3. p.320.

독서교육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책 읽는 방법, 효과적인 독서법, 책 읽는 자세, 독서 예절, 독서 시간과 장소, 독서위생, 독서계획 세우기, 속독요령, 독서감상문 쓰기, 원고지 쓰는 방법, 책의 선택 방법, 독서행사, 독서회운영, 도서관 이용법 등을 지도하는 것이다.

독서교육은 독서를 통하여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교육이며, 독서하는 태도, 지식 능력 흥미, 기술, 습관 등의 형성과 그 개발을 지도하는 것이다.⁸⁾ 또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독서 방법을 가르쳐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2. 독서와 대학생

대학생활 4년은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나, 4년 동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연구하였는가 중요하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성공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친구와 스승, 그리고 나아가 남녀간의 사귄과 같은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바람직하게 갖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안목을 넓히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안목과 자신감을 갖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독서를 통한 정보와 지식의 획득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통해서 내면적 충실을 기하는 것이다. 도서관에 가면 많은 스승을 만날 수 있다. 대학교육은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다. 대학은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다. 독서를 통해서 전공은 물론 교양을 쌓아 두지 않으면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전공 이외의 폭 넓은 교양을 쌓아 놓지 않으면 유동적인 사회의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양을 넓히면서 연구하는 방법을 익히고, 독서력과 비판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떳떳하고 당당한 자신을 만들기 위하여 대학 4년 동안을 효과 있게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통해 자기교육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독서의 목적은 인격수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고전이나 인문과학 도서를 읽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생이 학습을 위하여 참고문헌을 읽거나 교수가 직업상 전공서적을 읽는 것도 독서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교양을 위한 독서를 교양독서라 하고, 전문지식을 위해 전문서적을 읽는 것, 즉 학습을 위한 독서를 학습독서 또는 전문독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가 발달하고 전문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교양과 전문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거나, 나의 전문지식이 남의 교양에 불과한 경우가 있고, 나의 교양이 남의 전문지식이 될 수도 있는 사회가 되었다. 한편 학문에 있어서도 학제(學際)⁹⁾도 불분명하고 상호 관련이 많

8) 김효정 외.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0. p.4.

아지기 때문에 폭넓은 지식의 습득이 없이는 한 권의 책도 읽을 능력이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교양독서라는 것은 인문·사회·자연·기술과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광범위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독서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16가지 법칙⁹⁾ 중에서 10번째로 독서를 제시하였다. “세상의 유명한 사람, 세상에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단 한 가지만 꼽으려면 아마 ‘독서’일 것이다. 또한 풍부한 상식과 넘치는 자신감과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만 꼽으려면 ‘독서’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 대학생들은 책을 멀리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2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는 한 유명 소설가도 있고, 여름 내내 도서관에서 우리 현대사의 모든 책을 읽었다는 한 유명 언론인도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세상의 가치와 진실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현대사에 관한 독서를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러면 지성인으로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높아질 것이다.

대학시절은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사상을 건설하는 시기이다. 대학시절의 독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인 성숙을 제공해 주는 기초가 된다. 대학생은 독서를 통해서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대학 시절을 가리켜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곤 한다. 왜냐하면 캠퍼스 생활을 비롯한 긴 방학이 모두 자기 시간이며, 전적으로 자신의 성장과 자아의 완성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자아를 탐색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사랑과 우정의 철학을 터득하고 일과 세계의 참 뜻을 생각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한다. 대학생활은 틀에 짜여진 생활보다는 많은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시절이 억제와 유보의 생활이라면 대학은 보다 자유로운 창조의 생활이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스스로 도서관에서 문헌을 찾아 참고하고 연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다. 대학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람직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루어야 할 과업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서이다. 대학생의 독서는 대학 4년의 캠퍼스 활동뿐만 아니라 장차 살아 갈 평생의 인생 노정을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지나간 대학 생활 가운데 독서 생활에 대하여 자기에게 “도서관은 몇 번이나 이용했는지?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스스로 묻고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캠퍼스 곳곳에 펼쳐있는 “책 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가을은 독서의 계절, 책이 있는 도서관으로”, “벗 삼아 읽는 책, 평생의 스승”이라는 현수막과 표어는 우리를 한층 더 독서 삼매경으로 빠져들게 하는데 충분한 분위기이다. 독서력은 국력이다. 독서력은 학력이다. 책

9) 학문의 경계를 말한다.

10) <http://www.ucpress.co.kr/> [인용 2004. 2. 4]

읽지 않는 국민은 문화 국민이 될 수 없다. 독서하는 대학생은 교양 있는 학생이다.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는 표어처럼 손에 책을 든 대학생은 귀하고 지성이 넘친다. 대학생은 전공에 관한 기초 지식을 쌓고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양을 얻기 위해서 동·서양의 문화 및 사상을 골고루 섭렵하며 독서해야 할 것이다.¹¹⁾

Ⅲ. 자료 조사 및 분석

1. 자료조사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표집대상은 D대학교 신입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으로 교양과목 이수 학생 중 1학년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받아 작성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학생의 총 200명 중 통계 처리에 사용할 수 있게 응답한 학생은 180 명으로 90% 였다. 설문지 회수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설문지 회수 현황(%)

구 분	남 (%)	여 (%)	합계 (%)
설문지 배부 수	80	120	200
회수된 설문지 수	68	117	185
연구에 사용된 수	66	114	180

(2) 조사 방법 및 처리

이 연구의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작성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는 2003년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회수 상황은 <표-1>과 같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선택형식 문항의 결과 처리는 응답 요령대로 기입된 항목의 빈도수를 백분율(%)로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유응답 문항은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3) 설문지의 구성

11) 이만수, “대학생과 독서문화” 대진대학보 제48호, 대진대학교 학보사, 1996.

이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손정표의 『신독서지도방법론』과 한국 출판 연구소의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참고로 하여 총 27개 항목으로 결정하였는데 문항 형태는 선택형과 자유응답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설문지의 내용

문항 별 설문 내용	
1. 성별	2.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하는 일
3.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	4.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
5. 평소 즐겨 보는 도서 분야	6. 책 읽는 이유
7. 책 읽는 데 장애 요인	8. 지난달에 읽은 책 수
9. 책 구하는 방법(도서와 잡지)	10. 지난 1년 동안 읽은 가장 기억 남는 책
11. 좋아하는 국내외 저자 (1)국내 (2)국외	12. 인터넷에서 하는 일 횟수와 빈도 (1)도서정보검색 (2) 도서구입 (3)전책 사이트 이용
13.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서	14. 대진대 중앙도서관 이용 유무와 횟수
15. 중앙도서관 이용 목적	16. 중앙도서관이용 만족도
17. 만족하다면 무엇이 만족한가	18. 불만족하다면 무엇이 불만인가
19. 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20. 중앙도서관 인터넷 서비스 이용 유무와 만족도
21. 중앙도서관의 만족한 시설로서의 요건	22. KBS TV 독서프로그램 TV 책을 말하다 시청 KBS 독서프로그램 본적이 있다면 (1) 소개된 책에 대하여 (2) 그 영향
23. MBC TV 독서프로그램 느낌표 시청 MBC 독서프로그램 본적이 있다면 (1) 소개된 책에 대하여 (2) 그 영향	24. TV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25. 독서의 학생생활 영향 정도	26. 일반적인 독서 장려 역점 사항
27. 대학에서의 독서 장려 역점 사항	

2. 자료 분석

(1) 학생의 성별

조사된 학생의 성별은 남자 66 명, 여자 114 명 모두 180명이다. 교양과목 이수 학생에게 설문지를 무작위로 배포하였더니 남자보다 여학생 수가 더 많이 조사되었다.

(2) 여가 시간이 생기면 주로 하는 일

<표-3> 여가시간의 활용현황

문항	명/%	문항	명/%	문항	명/%
1. 책읽기	62/11.5	2. 신문/잡지읽기	19/3.5	3. 만화책읽기	28/5.2
4. TV시청하기	71/13.2	5. 라디오 듣기	17/3.2	6. 인터넷하기	93/17.2
7. PC방 가기	11/2.0	8. 컴퓨터 게임 하기	30/5.6	9. 영화관람	41/7.6
10. 비디오 시청	11/2.0	11. 비디오방 가기	3/0.6	12. 당구 탁구	5/0.9
13. 운동경기관람	9/1.7	14. 체력단련/각종운동	9/1.7	15. 등산	2/0.4
16. 여행	3/0.6	17. 낚시	2/0.4	18. 노래방 가기	17/3.2
19. 친구나 동료모임	38/7.0	20. 바둑 장기	0/0	21. 요리하기	3/0.6
22. 수면 휴식	41/7.6	23. 화투 카드놀이	5/0.9	24. 쇼핑 아이쇼핑	20/3.7
합 계					540/100

여가 시간이 생기면 주로 하는 일 3가지에 대한 질문에 인터넷하기 17.2%(93명), TV 시청하기 13.2%(71명), 책읽기 11.5%(62명), 영화관람 7.6%(41명), 수면/휴식 7.2%(41명), 친구나 동료 모임 7.0%(38명), 컴퓨터 게임 하기 6%(30명), 만화책읽기 5.2%(28명), 쇼핑/아이쇼핑 3.7%(20명), 신문/잡지 읽기 3.53%(19명), 라디오 듣기 3.26%(17명), 노래방 가기 3.2%(17명), PC방 가기 2.0%(11명), 비디오 시청 2.0% (11명), 운동경기 관람 7%(9명), 체력단련/각종운동 1.7%(9명) 이다.

3.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와 이용 빈도

(1) TV 보기

<표-4> TV보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29/16.1	2. 30분 미만	17/9.4
3. 30분 -1시간 미만	30/16.7	4. 1-2시간 미만	53/29.4
5. 2-3시간 미만	19/10.6	6. 3-4시간 미만	16/8.9
7. 4-5시간 미만	8/4.4	8. 5시간 이상	8/4.4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TV 시청에 관한 질문에 1-2시간 미만이 29.4%(53명), 30분-1시간 미만이 16.7%(30명), 안본/안한다가 16.1%(29명), 2-3시간 미만 10.6%(19명), 30분 미만이 9.4%(17명)이다.

(2) 라디오 듣기

<표-5> 라디오 듣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114/63.3	2. 30분 미만	27/15.0
3. 30분-1시간 미만	13/7.2	4. 1-2시간 미만	12/6.7
5. 2-3시간 미만	7/3.9	6. 3-4시간 미만	2/2.5
7. 4-5시간 미만	2/2.5	8. 5시간 이상	3/3.8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5권 제 1호)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라디오 청취에 관한 질문에 안본다/안한다가 63.3%(114명), 30분 미만 15.0%(27명), 30분-1시간 미만이 7.2%(13명), 1-2시간 미만 6.7%(12명), 2-3시간 미만이 3.9%(7명)이다.

(3) 신문읽기

<표-6> 신문읽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70/38.9	2. 30분 미만	69/38.3
3. 30분-1시간 미만	30/16.7	4. 1-2시간 미만	10/5.6
5. 2-3시간 미만	0/0	6. 3-4시간 미만	0/0
7. 4-5시간 미만	0/0	8. 5시간 이상	1/0.6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신문 읽기에 관한 질문에 안본다/안한다가 38.9%(70명), 30분 미만 38.3%(69명), 30분-1시간 미만이 16.7%(30명), 1-2시간 미만 5.6%(10명), 5시간 이상도 0.6%(1명)이나 된다.

(4) 책읽기

<표-7> 책 읽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40/22.2	2. 30분 미만	33/18.3
3. 30분-1시간 미만	47/26.1	4. 1-2시간 미만	41/22.8
5. 2-3시간 미만	6/3.3	6. 3-4시간 미만	5/2.8
7. 4-5시간 미만	6/3.3	8. 5시간 이상	2/1.1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책 읽기에 관한 질문에 30분-1시간 미만 26.1%(47명), 1-2시간 미만 22.8%(41명), 안본다/안한다가 22.2%(40명), 30분 미만 18.3%(33명), 5시간 이상도 1.1%(2명)이나 된다.

(5) 만화읽기

<표-8> 만화 읽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108/60.0	2. 30분 미만	19/10.6
3. 30분-1시간 미만	17/9.4	4. 1-2시간 미만	11/6.1
5. 2-3시간 미만	13/7.2	6. 3-4시간 미만	8/4.4
7. 4-5시간~미만	2/1.1	8. 5시간 이상	2/1.1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만화 읽기에 관한 질문에 안본다/안한다가 60.0%(108명), 30분 미만 10.6%(19명), 30분-1시간 미만 9.4%(17명), 2-3시간 미만 7.2%(13명), 1-2시간 미만 6.1%(11명), 5시간 이상도 1.1%(2명)이나 된다.

(6) 잡지읽기

<표-9> 잡지 읽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109/60.6	2. 30분 미만	39/21.7
3. 30분-1시간 미만	16/8.9	4. 1-2시간 미만	3/1.7
5. 2-3시간 미만	2/1.1	6. 3-4시간 미만	5/2.8
7. 4-5시간 미만	2/1.1	8. 5시간 이상	4/2.2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잡지 읽기에 관한 질문에 안본다/안한다가 60.6%(109명), 30분 미만 21.7%(39명), 30분-1시간 미만 8.9%(16명), 3-4시간 미만 2.8%(5명), 5시간 이상도 2.2%(4명)이나 된다.

(7) 비디오 보기

<표-10> 비디오 보기 빈도

문항	명/%	문항(명/%)	명/%
1. 안본다/안한다	112/62.2	2. 30분 미만	13/7.2
3. 30분-1시간 미만	6/3.3	4. 1-2시간 미만	21/11.7
5. 2-3시간 미만	17/9.4	6. 3-4시간 미만	3/1.7
7. 4-5시간 미만	5/2.8	8. 5시간 이상	3/1.7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비디오 보기에 관한 질문에 안본다/안한다가 62.2%(112명), 1-2시간 미만 11.7%(21명), 2-3시간 미만 9.4%(17명), 30분 미만 7.2%(13명), 5시간 이상도 1.7%(3명)이나 된다.

(8) PC통신 인터넷

<표-11> PC통신 인터넷 하기

문항(명/%)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16/8.9	2. 30분 미만	12/6.7
3. 30분-1시간 미만	19/10.6	4. 1-2시간 미만	34/18.9
5. 2-3시간 미만	34/18.9	6. 3-4시간 미만	31/17.2
7. 4-5시간 미만	11/6.1	8. 5시간 이상	23/12.8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PC 통신 인터넷 하기에 관한 질문에 2-3시간 미만 18.9%(34명), 1-2시간 미만 18.9%(34명), 3-4시간 미만 17.2%(31명), 5시간 이상 12.8(23명) 30분-1시간 미만 10.6%(19명), 안본다/안한다가 8.9%(16명) 30분 미만 6.7%(12명), 4-5시간 미만 6.1%(11명)이다.

4.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와 빈도

(1) TV 보기

<표-12> TV보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35/19.4	2. 30분 미만	9/5.0
3. 30분-1시간 미만	14/7.8	4. 1-2시간 미만	34/18.9
5. 2-3시간 미만	34/18.9	6. 3-4시간 미만	20/11.1
7. 4-5시간 미만	12/6.7	8. 5시간 이상	22/12.2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에 관한 질문 중에서 TV 보기는 안본다/안한다 19.4%(35명), 1-2시간 미만 18.9%(34명), 5시간 이상 12.2%(22명), 3-4시간 미만 11.1%(20명), 30분-1시간 미만 7.8%(14명), 4-5시간 미만 6.7%(12명) 이다.

(2) 라디오 듣기 빈도

<표-13> 라디오 듣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120/66.7	2. 30분 미만	23/12.8
3. 30분-1시간 미만	10/5.6	4. 1-2시간 미만	14/7.8
5. 2-3시간 미만	5/2.8	6. 3-4시간 미만	3/1.7
7. 4-5시간 미만	3/1.7	8. 5시간 이상	3/1.7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에 관한 질문 중에서 라디오 듣기는 안본다/안한다 66.7%(120명), 30분 미만 12.8%(23명), 1-2시간 미만 7.8%(14명), 30분-1시간 미만 5.6%(10명), 5시간 이상도 1.7%(3명)이나 된다.

(3) 신문읽기

<표-14> 신문읽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88/48.9	2. 30분 미만	61/33.9
3. 30분-1시간 미만	22/12.2	4. 1-2시간 미만	6/3.3
5. 2-3시간 미만	3/1.7	6. 3-4시간 미만	0/0
7. 4-5시간 미만	0/0	8. 5시간 이상	0/0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에 관한 질문 중에서 신문읽기는 안본다/안한다 48.9%(88명), 30분 미만 33.9%(61명), 30분-1시간 미만 12.2%(22명), 1-2시간 미만 3.3%(6명), 2-3 시간 미만 1.7%(3명)이다.

(4) 책읽기

<표-15> 책읽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60/33.3	2. 30분 미만	30/16.7
3. 30분-1시간 미만	34/18.9	4. 1-2시간 미만	33/18.9
5. 2-3시간 미만	10/5.6	6. 3-4시간 미만	8/4.4
7. 4-5시간 미만	3/1.7	8. 5시간 이상	2/1.1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책읽기는 안본다/안한다 33.3%(60명), 30분-1시간 미만 18.9%(34명), 1-2시간 미만 18.9%(33명), 2-3 시간 미만 5.6%(10명)이다.

(5) 만화읽기

<표-16> 만화읽기 빈도

문항	명/%	문항(명/%)	명/%
1. 안본다/안한다	115/63.9	2. 30분 미만	24/13.3
3. 30분 -1시간 미만	14/7.8	4. 1-2시간 미만	9/5.0
5. 2-3시간 미만	10/5.6	6. 3-4시간 미만	6/3.3
7. 4-5시간 미만	1/0.6	8. 5시간 이상	1/0.6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만화 읽기에 대한 질문에 안본다/안한다 63.9%(115명), 30분 미만 13.3%(24명), 30-1시간 미만 7.8%(14명), 2-3시간 미만 5.6%(10명)이다.

(6) 잡지읽기

<표-17> 잡지 읽기 빈도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119/66.1	2. 30분 미만	29/16.1
3. 30분 -1시간 미만	16/8.9	4. 1-2시간 미만	6/3.3
5. 2-3시간 미만	4/2.2	6. 3-4시간 미만	5/2.8
7. 4-5시간 미만	1/0.6	8. 5시간 이상	0/0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잡지 읽기에 대한 질문에 안본다/안한다 66.1%(119명), 30분 미만 16.1%(29명), 30-1시간 미만 8.9%(16명)이다

(7) 비디오 보기

<표-18> 비디오 시청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108/60	2. 30분 미만	9/5
3. 30분 -1시간 미만	9/5	4. 1-2시간 미만	25/13.4
5. 2-3시간 미만	18/10	6. 3-4시간 미만	4/2.2
7. 4-5시간 미만	3/1.7	8. 5시간 이상	4/2.2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에 관한 질문 중에서 비디오 시청에 대한 질문에 안본다/안한다 60%(108명), 1-2시간 미만 13.4%(25명), 2-3시간 미만 10%(18명)30분 미만과 30분-1시간 미만 10%(18명)이다.

(8) PC 통신 인터넷

<표-19> PC통신 인터넷 하기

문항	명/%	문항	명/%
1. 안본다/안한다	20/11.1	2. 30분 미만	8/4.4
3. 30분 -1시간 미만	11/6.1	4. 1-2시간 미만	22/12.2
5. 2-3시간 미만	37/20.6	6. 3-4시간 미만	26/14.4
7. 4-5시간 미만	24/13.3	8. 5시간 이상	32/17.8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에 관한 질문 중에서 PC통신 인터넷에 대한 질문에 20.6%(37명) 2-3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7.8%(32명), 3-4시간 미만 14.4%(26명), 4-5시간 미만 13.3%(24명), 1-2시간 12.2%(22명), 안본다/안한다. 11.1%(20%)이다. 1시간 이상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하는 학생이 약 80%이다.

5. 평소 즐겨 보는 도서 분야

<표-20> 우선순위 3분야

문항	1순위 명/%	2순위 명/%	3순위 명/%	문항	1순위 명/%	2순위 명/%	3순위 명/%
1. 일반소설	81/45	36/20	17/9.4	2. 무협지/ 환타지소설	14/7.8	17/9.4	8/4.4
3. 추리소설	13/7.2	26/14.4	21/11.7	4. 시	11/6.1	12/6.7	8/4.4
5. 수필	2/1.1	12/6.7	23/12.8	6. 전기/수기	3/1.7	2/1.1	4/2.2
7. 다큐	4/2.2	1/0.6	0/0	8. 철학	9/5.0	4/2.2	11/6.1
9. 역사/지리	7/3.9	12/6.7	4/2.2	10. 경영/경제	1/0.6	3/1.7	4/2.2
11. 법/정치	0/0	0/0	1/0.6	12. 종교	0/0	6/3.3	2/1.1
13. 과학/기술	0/0	3/1.7	0/0	14. 어학	7/3.9	6/3.3	15/8.3
15. 테크/부동산	1/0.6	0/0	3/1.7	16. 컴퓨터	0/0	1/0.6	0/0
17. 건강/다이어트	0/0	0/0	3/1.7	18. 스포츠	3/1.7	0/0	0/0
19. 여행	0/0	1/0.6	1/0.6	20. 취미	3/1.7	5/2.8	13/7.2
21. 연예/오락	5/2.8	13/7.2	9/5.0	22. 요리	0/0	3/1.7	2/1.1
23. 만화	13/7.2	14/7.8	24/13.3	24. 성인동화	0/0	2/1.1	4/2.2
25. 기타	3/1.7	1/0.6	3/1.7	합계	180/100	180/100	180/100

평소 즐겨 보는 도서분야 1순위로는 일반소설 45%(81명), 무협지/ 환타지 소설 7.8%(14명), 추리소설과 만화가 7.2%(13명), 시 6.1%(11명), 철학 5.0%(9명), 역사/지리 3.9%(7명) 이다.

2순위로는 일반소설 20%(36명), 추리소설 14.4%(26명), 무협지/ 환타지 소설 9.4%(17명), 만화 7.2%(13명), 연예/오락 7.2%(13명), 수필과 역사/지리 6.7%(12명) 이다.

3순위로는 만화 13.3%(24명), 수필 12.8%(23명), 추리소설 11.7%(21명), 일반소설 9.4%(17명), 어학 8.3%(15명) 철학 6.1%(11명)이다.

6. 책 읽는 이유

<표-21> 책 읽는 이유 비교

문항	명/%
1.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44/24.4
2.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42/23.3
3. 과제 또는 리포트(report)를 쓰기 위하여	22/12.2
4.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	28/15.6
5.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하기 위하여	3/1.7
6.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16/8.9
7.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	21/11.7
8.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음,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4/2.2
합계	180/100

책 읽는 이유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24.4%(44명),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23.3%(42명),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 15.6%(28명), 과제 또는 리포트를 쓰기 위하여 12.2%(22명),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 11.7%(21명),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8.9%(16명)이다.

7. 책 읽는 데 장애 요인

<표-22> 책 읽기 장애 요인

문항	1순위 명/%	2순위 명/%	문항	1순위 명/%	2순위 명/%
1.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았다.	53/29.4	8/4.4	2. 공부하기 바빠서 시간이 없다.	31/17.2	19/10.6
3. TV/비디오 보느라고 시간이 없다.	15/8.3	20/11.1	4. 컴퓨터/인터넷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29/16.1	34/18.9
5.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	10/5.6	26/14.4	6. 읽을 만한 책이 없다.	8/4.4	3/1.7
7. 책을 사 볼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	9/5	13/7.2	8.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쁘다.	20/11.1	50/27.8
9.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0/0	4/2.2	10. 기타 (여가 시간 없음, 생활하기 바듯함, 좋은 책을 정하여 주면 좋겠다.)	5/2.9	3/1.7
합계				180/100	180/100

책 읽는데 장애요인은 1순위로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았다가 29.4%(53명), 공부하기 바빠서 시간이 없다 17.2%(31명), 컴퓨터/인터넷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16.1%(19명),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쁘다 11.1%(20명)이며,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 5.6%(10명)이나 된다. 2순위로는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쁘다. 27.8%(50명)이며, 컴퓨터/인터넷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18.9%(34명),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 14.4%(26명), TV/비디오 보느라고 시간이 없다 11.1%(20명), 공부하기 바빠서 시간이 없다 10.7%(19명)이며, 책을 사 볼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가 7.2%(13명)나 된다.

8. 지난달에 읽은 책 수

<표-23> 읽은 책 수

권 수	명/%	권 수	명/%
1. 1권	34/18.9	2. 2권	43/23.9
3. 3권	28/15.6	4. 4권	24/13.3
5. 5권	20/11.1	6. 6권	5/2.8
7. 7권	4/2.2	8. 8권	1/0.6
9. 9권	1/0.6	10. 10권	8/4.4
11. 11권	0/0	12. 12권	1/0.6
13. 13권	0/0	14. 14권 이상	5/2.8
15. 0권	6/3.3	합 계	180

지난달에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해 보면 2권 23.9%(43명), 1권 18.9%(34명), 3권 15.6%(28명), 4권이 13.3%(24권), 5권이 11.1%(20명)이다. 14권 이상 읽는 학생도 2.8%(5명)이다.

9. 책 구하는 방법(도서와 잡지)

(1) 일반도서

<표-24> 일반도서 구하기 비교

문 항	1순위 (명/%)	2순위 (명/%)	문 항	1순위 (명/%)	2순위 (명/%)
1. 직접 구해서 본다 (서점/인터넷 주문)	66/36.7	26/14.4	2. 선물로 받는다.	5/2.8	19/10.7
3. 주위 사람에게 빌려 본다	17/16.1	24/13.3	4. 도서대여점 등에서 빌려 본다.	32/17.8	27/15
5.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본다	14/7.8	21/11.7	6. 대학도서관에서 빌려본다	42/23.3	63/35
7. 기타(집에 있는 것)	2/1.1	0/0	8.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2/1.1	0/0
합 계			합 계		
			180/100 180/100		

일반 도서를 구하는 방법으로 1순위로 직접 구해서 본다가 36.7%(66명), 대학도서관에서 빌려본다 23.3%(42명), 도서대여점 등에서 빌려 본다가 17.8%(32명), 주위 사람에게 빌려 본다가 16.1%(17명),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본다가 7.8%(14명)이다.

2순위로 대학도서관에서 빌려본다 35%(63명), 도서대여점 등에서 빌려 본다 15%(27명), 직접 구해서 본다가 14.4%(26명), 주위 사람에게 빌려 본다가 13.3%(24명),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본다가 11.7%(21명)이다.

(2) 잡지

<표-25> 잡지 구하기 비교

문항	1순위 (명/%)	2순위 (명/%)	문항	1순위 (명/%)	2순위 (명/%)
1. 직접 구해서 본다 (서점/인터넷 주문)	52/28.9	36/20	2. 선물로 받는다.	4/2.2	12/6.7
3. 주위 사람에게 빌려 본다	21/11.7	34/18.9	4. 도서대여점 등에서 빌려 본다.	47/26.1	25/13.9
5.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본다	13/7.2	0/0	6. 대학도서관에서 빌려본다	3/1.7	36/20
7. 기타(서점에서 본다 등)	0/0	3/1.7	8.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40/22.2	34/18.9
합계			합계		
			180/100		

잡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1순위로 직접 구해서 본다가 28.9%(52명), 도서대여점 등에서 빌려 본다가 26.1%(47명), 주위 사람에게 빌려 본다가 11.7%(21명),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22.2%(40명),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본다가 7.2%(13명)이다. 2순위로 대학도서관에서 빌려 본다가 직접 구해서 본다가 같은 20%(36명), 직접 구해서 본다가 14.4%(26명), 주위 사람에게 빌려 본다가 책을 전혀 읽지 않다가 같은 18.9%(34명), 도서대여점 등에서 빌려 본다가 13.9%(25명)이다

10. 지난 1년 동안 읽은 가장 기억 남는 책

(1)학의 머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2)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3)궁전의 새 (4)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5)황만근은 내게 말했다. (6)굴소년의 우울한 죽음 (7)뇌 (8)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9)나를 읽다. (10)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1)냉정과 열정사이 (12)새의 선물 (13)아버지 (14)가시고기 (15)퇴마록 (16)입속의 검은 잎 (17)거미 (18)상도 (19)아리랑 (20)호출 (21)이상 문학집 (22)어린왕자 (23)연탄길 (24)영혼의 아이 (25)톨스토이 (26)가즈오의 나라 (27)내 생애의 아이들 (28)오페라 유령 (29)사망일기 (30)한비아의 중국권 문록 (31)좋은 생각 (32)오체불만족 (33)하루미 그녀의 허벅지에는 국화꽃이 새겨져 있다 (34)서있는 여자 (35)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짓말 (36)희망을 파는 가게 (37)톨스토이 단편선 (38)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39)한반도 (40)거대한 체스판 (41)폭풍의 언덕 (42)마당 깊은 집 (43)기억 속으로 걷기 (44)도쿠가와 이에야스 (45)적의 화장법 (46)헤리포터 (47)함정 (48)아침인사 (49)바이올렛 (50)하늘이여 땅이여 (51)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52)나무 (53)팽이부리말 아이들 (54)다섯 살 소년 (55)아시아의 역사 (56) 딥스 (57)한 여름밤의 꿈 (58)냉정과 열정사이 (59)화(anger) (60)해협 빛 (61)국화꽃 향기 (62)J이야기 (63)호밀밭의 파수꾼 (64)태자비 (65)납치사건 (66)모랫말 아이들 (67)연어 (68)인간의 아들 (69)죽은 시인의 사회

(70)썩썩 (71)음악보다 아름다운 사람(존레논) (72)나의 왼발 (73)영어학개론 (74)연금술사
(75)리니지 (76)일본은 없다 (77)그놈은 멋 있었다 (78)궁전의 새 (79)굴소년의 우울한 죽음
(80)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81)나를 잃다 (82)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83)아버지 (84)입
속의 검은 잎 (85)거미 (86)영혼의 아이 (87)톨스토이 (88)내 생애의 아이들 (89)사망일기
(90)오페라의 유령

11. 좋아하는 국내외 저자

(1) 국내 저자

신경숙, 천운영, 김영하, 조정래, 이지선, 김하인, 정향, 김형경, 심재휘, 조병화, 황석영, 서
병국, 이우혁, 조정래, 신경림, 박완서, 박경리, 박경자, 류시화, 김진명, 이문열, 이폴잎, 정수
일, 정채봉, 김정현, 이영도, 성석제, 이외수, 양귀자, 황석영, 현기영, 하병무, 은희경, 이장욱,
서정주, 최인호, 귀여니, 김주영, 김승옥, 이광수, 이외인, 이정하, 전영우, 유안진, 이순원, 기
형도, 최인호, 박성우, 전경린, 권지혜

(2) 국외 저자

요시모토바나나, 에쿠니가오리, 무라카미하루키, 아시타지로, 베르나르베르베르, V.C 앤드
류스, 세익스피어, 오쇼라즈니쉬, 톱낫한, 데일카네기, 톨스토이, 류오우칭, 밀란쿤데라, 포리스
터카터, 아가사크리스티, 야마도카소타치, 조앤K롤랑, 에밀리노퐁, 마이클플라이튼, 스티브(2),
에코, 오싱, 오체불만족 작가, 푸쉬킨, 탐, JF톨킨, 필립안시, 시드니셀던, 아사다지로, 로빈쿡,
파트리크쥐스칸트, 롤링, 찰스디킨스, 마이클잭슨, 엘리자베스테일러, 생뵉쥐베리, 에쿠니가오
리, 파울로코엘료, 워즈워드, 아사다지로, V.C앤드류스, 오쇼라즈니쉬, 톱낫한, 데일카네기, 류
오우칭

12. 인터넷에서 하는 일 횟수와 빈도

(1) 도서정보 검색

<표-26> 도서정보 검색하기

도서정보, 검색 한다(121명/67.2%), 안한다(59명/32.8%)	
한다면	
1. 거의 매일	12/9.9
2. 주 1-2회	43/35.5
3. 주 3-4회	16/13.2
4. 월 1-2회	39/32.2
5. 월 1회 미만	11/9.1
합 계	121/100

인터넷에서 도서정보 검색을 한다가 67.2%(121명)이며, 하지 않는다가 32.8%(43명)이다.

도서정보 검색을 하는 학생 중에서 주 1-2회가 35.5%(43명), 월 1-2회가 32.2%(39명), 주 3-4회가 13.2%(16명), 거의 매일이 9.9%(12명)이다. 59% 이상이 매일 또는 주 1-4회 도서정보 검색을 하고 있다.

(2) 도서구입(인터넷 서점)

<표-27> 도서구입하기

도서구입(인터넷 서점) 한다(89명/49.4%), 안한다(91명/50.6 %)	
한다면	
1. 거의 매일	5/5.6
2. 주 1-2회	1/1.1
3. 주 3-4회	0/0
4. 월 1-2회	33/37.1
5. 월 1회 미만	50/56.2
합 계	89/100

인터넷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생은 49.4%(89명)이며, 월 1회 미만이 56.2%(50명)이며, 월 1-2회가 37.1%(33명), 구입하지 않은 학생이 50.6%(91명)이다.

(3) 전자 책(e-book) 사이트 이용

<표-28> 전자책 사이트 이용하기

전자 책(e-book) 사이트 이용 한다(67명/37.2%), 안한다(113명/62.8%)	
한다면	
1. 거의 매일	3/4.5
2. 주 1-2회	17/25.4
3. 주 3-4회	0/0
4. 월 1-2회	36/53.7
5. 월 1회 미만	11/16.4
합 계	67/

전자 책(e-book)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은 37.2%(67명)이며, 이용하는 학생 중에 월 1-2회가

53.7%(36명), 주 1-2회가 25.4%(17명), 월 1회 미만인 16.4%(11명)로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은 학생이 62.8%(113명)이다

13.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서

<표-29>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서 비교

문항	명/%
1. 문학관련 도서(시, 소설, 수필 등)	29/32.6
2. 문학 이외의 교양 도서(역사, 경제, 경영 등)	10/11.2
3. 전문 학술서	3/3.4
4. 실용도서(어학, 컴퓨터, 취미, 재테크 등)	18/20.2
5. 백과사전, 전집류	4/4.5
6. 대학교재	11/12.4
7. 만화	7/7.9
8. 잡지	4/4.5
9. 기타: 문제집 1 성인잡지 1 악보 1	3/3.4
합계	89/100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서로는 문학관련 도서(시, 소설, 수필 등)가 32.6%(29명), 실용도서(어학, 컴퓨터, 취미, 재테크 등)가 20.2%(18명), 대학교재 12.4%(11명), 문학 이외의 교양 도서(역사, 경제, 경영 등)가 11.2%(10명)순으로 나타났다.

14. D대 중앙도서관 이용 유무와 횟수

<표-30> D대 중앙도서관 이용 유무와 횟수 비교

D대 중앙도서관 이용한 경험 있다(168명/93.3%), 없다(12명/6.7%)	
있다면	
1. 1-2번	6/3.6
2. 3-5번	37/22.0
3. 6-9번	12/7
4. 10-15번	35/21
5. 15번 이상	78/46.4
합계	168/100

중앙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93.3%(168명)로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15번 이상이 46.4%(78명), 3-5번이 22.0%(37명), 10-15번이 21%(35명)로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6.7%(12명)이다

15. 중앙도서관 이용 목적

<표-31> 중앙도서관 이용 목적 비교

중앙도서관 이용 목적(명/%)	
1. 책 열람 및 대출	113/67.3
2. 자료 조사/연구	26/15.5
3. 시험공부를 위한 좌석 이용	19/11.3
4. 멀티미디어 이용	10/5.9
5. 전시회 등 행사 참가	0/0
6. 기타	0/0
합 계	168/

중앙도서관 이용 목적에 책 열람과 대출 67.3%(113명), 자료/조사연구 15.5%(26명), 시험공부를 위한 좌석 이용 11.3%(19명), 멀티미디어 이용 5.9%(10명)로 나타났다.

16. 중앙도서관이용 만족도

<표-32> 중앙도서관 이용 만족도 비교

중앙도서관 이용 만족도(명/%)	
1. 매우 만족	17/10.1
2. 대체로 만족	66/39.3
3. 보통	68/40.5
4. 대체로 불만	13/7.7
5. 매우 불만	4/2.4
합 계	168/100

중앙도서관 이용 만족에 관한 질문에 보통 40.5%(68명), 대체로 만족 39.3%(66명), 매우만족이 10.1%(17명)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학생도 10%(17명) 정도이다.

17. 만족하다면 무엇이 만족한가

(1) 시설이 좋다. (2) 시설이 넓다. (3) 자료가 많다. (4) 이용하기 편리하다. (5) 대여기간이 길다. (6) 신간이 많다. (7) 열람좌석이 많다. (8)조용하다. (9) 책이 깨끗하다.

18. 불만족하다면 무엇이 불만인가

(1) 도서관에 가기가 힘들다. (2) 컴퓨터가 잘 안되는 것이 있다. (3) 고전자료가 부족하다. (4) 시험기간과 주말 이용의 불가능하다. (5) 책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6) 대출할 책의 양이 적어 빌리지 못 한다. (7) 개방시간이 짧다. (8) 학술지 자료검색이 어렵다 (9) 반납시 도서관까지 가야하니 번거롭다. (10) 비디오자료 최신작이 부족하다. (11) 데스크 근로학생 불친절하다. (12) 공간 활용도가 낮다.(대체로 막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13) 비치되어 있어야 할 책이 없고 훼손이 많다. (14) 인기가 많거나 오래된 책에 파본이 많다 (15) 신도서가 적다. (16) 검색 후 책을 찾을 때 어렵다. (17) 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19. 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표-33> 중앙도서관 미 이용 이유

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명/%)	
1. 읽을 만한 책이 없다	20/11.1
2. 수업이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30/16.7
3. 강의실에서 멀다	74/41.1
4. 도서대여점을 이용 한다	6/3.3
5. 좌석이 없다	4/2.2
6. 개관 시간이 짧다	19/10.6
7. 이용 절차가 까다롭다	8/4.4
8. 독서상담/안내가 없다	10/5.6
9.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이 없다	4/2.2
10. 기타 이용 방법을 모름 1, 학생 증 분실 1, 책을 잘 읽음 1, 소장자료 부족 1 도서관이 너무 멀다. 1	5/2.8
합 계	180/100

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학생들은 가장 많은 이유로 41.1%(74명)이 강의실이 멀다이며, 그리고 수업이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가 16.7%(30명), 읽을 만한 책이 없다가 11.1%(20명), 개관 시간이 짧다가 10.6%(19명), 독서상담/안내가 없다가 5.6%(10명)로 생각하고 있다

20. 중앙도서관 인터넷 서비스 이용 유무와 만족도

<표-34> 인터넷 서비스 유무와 만족도 비교

중앙도서관 인터넷 서비스 이용한 경험 있다(135명/75%), 없다(45명/25%)	
있다면	
1. 매우 만족	14/10
2. 대체로 만족	47/35
3. 보통	52/39
4. 대체로 불만족	15/11
5. 매우 불만	7/5
합 계	135/100

중앙도서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을 해 본 학생이 75%(135명)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의 만족한 정도는 보통 39%(52명), 대체로 만족 35%(47명)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 10%(14명)이다. 전체적으로 만족한 정도는 45%(61명)이다.

21. 중앙도서관의 만족한 시설로서의 요건

<표-35> 중앙도서관의 시설 만족 요건

문항	1순위 (명/%)	2순위 (명/%)	문항	1순위 (명/%)	2순위 (명/%)
1. 장서(책)의 보유량.	101/56.1	19/10.6	2. 우수한 서비스 인력 (사서)	12/6.7	26/14.4
3. 도서관 시설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12/6.7	16/8.9	4. 정보화 수준(전자 도서관) 향상.	13/7.2	41/22.8
5. 개방 시간 연장 (현재 8시까지임)	30/16.7	36/20	6.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 개선 (매점, 문구점 등)	12/6.7	42/23.3
합 계			180/100		

중앙도서관의 만족한 시설로서의 요건은 1순위로 장서보유량 56.1%(101명), 개방 시간 연장 16.7%(30명)이다. 그 외 4개 영역은 12% 정도로 비슷하다.

2순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 개선 23.3%(42명), 정보화 수준 22.8%(41명), 개방시간 연장 20%(36명)이다. 만족한 시설의 요건으로 장서의 보유량, 개방시간 연장으로 응답하였다.

22. KBS TV 독서프로그램 TV책을 말하다 시청

<표-36> KBS TV 독서프로그램 시청 유무와 시청 결과

KBS TV 독서프로그램 TV 책을 말하다 시청 유무, 경험 있다(85명/47.2%), 없다(95명/52.8%)		
있다면		
	그렇다(명/%)	아니다(명/%)
1. TV에서 소개된 책을 읽어 보았다.	51/60	34/40
2. 독서 습관이 형성되어 소개된 책 이외의 다른 책을 찾아보게 되었다	34/40	51/60
합 계	85/100	85/100

KBS TV 독서프로그램 'TV 책을 말하다'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 47.2%, 없다는 응답이 52.8%로 약간 많다. TV에서 소개된 책을 읽어 보았다 60%(51명),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다른 책을 보 경험에 있는 학생이 40%(34명)이다. KBS TV 독서프로그램 TV 책을 말하다를 비교적 적게 시청하고 있으며, 독서 습관 형성에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MBC TV 독서프로그램 느낌표 시청

<표-37> MBC TV 독서프로그램 시청 유무와 시청 결과

MBC TV 독서프로그램 '느낌표' 시청한 유무, 경험이 있다(154명/85.6%), 없다(2614.5명/%)		
있다면		
	그렇다(명/%)	아니다(명/%)
1. TV에서 소개된 책을 읽어 보았다.	93/60.4	61/39.6
2. 독서 습관이 형성되어 소개된 책 이외의 다른 책을 찾아보게 되었다	61/39.6	93/60.4
합 계	154/100	154/100

MBC TV 독서프로그램을 느낌표를 시청한 학생이 85.6%(154명)이며, TV에서 소개된 책을 읽어 본 학생이 60.4%(93명),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다른 책을 보 경험에 있는 학생이 39.6%(61명)이다. MBC TV 독서프로그램 느낌표를 비교적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 독서습관 형성에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TV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표-38> TV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분항	명/%
1. 매우 긍정적인	36/20
2. 긍정적인	93/51.7
3. 그저 그렇다	36/20
4. 부정적인 편	2/1.1
5. 매우 부정적인	13/7.2
합 계	180/100

TV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임 51.7%(93명), 매우 긍정적임 20%(36명), 그저 그렇다 20%(36명), 부정적인 편도 8.3%(15명)이다. 학생들은 TV독서프로그램에 71.7%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25. 독서의 학생 사회생활 영향 정도

<표-39> 독서의 학생 사회생활 영향 정도 비교

문항	명/%
1.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80/44.4
2. 비교적 영향을 미친다	82/45.6
3. 그저 그렇다	14/7.8
4.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0/0
5.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4/2.2
합 계	180/100

독서가 학생 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비교적 영향 45.6%(82명), 매우 큰 영향 44.4%(80명)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독서생활이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26. 일반적인 독서 장려 역점 사항

<표-40> 일반적인 독서 장려 역점 사항 비교

문항	1순위(명/%)	2순위(명/%)
1.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등을 통한 독서 캠페인 운동	53/29.4	12/6.7
2. 독서운동 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한 독서 캠페인 운동	10/5.6	13/7.2
3. 학교도서관 확충과 독서프로그램 개발	58/32.2	13/7.2
4. 공공도서관 확충과 독서프로그램 개발	31/17.2	56/31.1
5.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14/7.8	23/12.8
6. 사고력, 창의력 중심 교육 강화	6/3.3	37/20.6
7. 좋은 책 출판 지원	8/4.4	9/5
8. 독서전문가 등 독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	0/0	4/2.2
9.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 등 독서진흥 예산 확충	0/0	13/7.2
10. 기타	0/0	0/0
합 계	180/100	180/100

일반적으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역점 사항은 1순위로 학교도서관 확충과 독서프로그램 개발 32.2%(58명),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등을 통한 독서 캠페인 운동 29.4%(53명), 공공도서관 확충과 독서프로그램 개발 17.2%(31명),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7.8%(14명)이다. 2순위로 공공도서관 확충과 독서프로그램 개발 31.1%(56명), 사고력, 창의력 중심 교육 강화 20.6%(37명),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7.2%(23명)이다. 학생들은 공공도서관 확충과 독서프로그램 개발 학교도서관 확충과 독서프로그램 개발,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 등을 통한 독서 캠페인 운동, 사교력, 창의력 중심 교육 강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7. 대학에서의 독서 장려 역점 사항

<표-41> 대학에서의 독서 장려 역점 사항 비교

문항	1순위(명/%)	2순위(명/%)
1. 교내방송, 학보, 게시판 등을 통한 독서캠페인	59/32.8	10/5.6
2. 문헌정보학과, 문창과, 국문과, 관련학과 등을 통한 독서캠페인 운동	18/10	17/9.4
3. 중앙도서관에서의 도서관주간, 다독자 표창, 독후감대회, 독서의 달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	56/31.1	42/23.3
4. 교수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수법 활용	8/4.4	13/7.2
5. 베스트 셀러, 스테디셀러, 교양서적 등 양서 구입	30/16.7	43/23.9
6. 중앙도서관의 시설 개선 전산화 도서구입비 예산 증액	8/4.4	33/18.3
7. 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졸업인증제 같은 제도 도입	1/0.5	22/12.2
8. 기타	0/0	0/0
합 계	180/100	180/100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역점 사항은 1순위로 교내방송, 학보, 게시판 등을 통한 독서캠페인이 32명(3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앙도서관에서의 도서관 주간, 다독자표창, 독후감대회 독서의 달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이 31.1%(56명)이다.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교양서적 등 양서 구입이 16.7%(30명)이다.

2순위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교양서적 등 양서 구입이 23.97%(43명)이며, 다음으로 중앙도서관에서의 도서관 주간, 다독자 표창, 독후감대회 독서의 달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이 23.31%(42명)이며, 중앙도서관의 시설 개선, 전산화, 도서구입비 예산 증액이 18.3%(33명)이고, 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졸업인증제 같은 제도 도입이 12.2%(22명)이다.

학생들은 중앙도서관에서의 도서관주간, 다독자 표창, 독후감대회, 독서의 달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교양서적 등 양서 구입, 교내방송, 학보, 게시판 등을 통한 독서캠페인, 중앙도서관의 시설 개선, 전산화, 도서구입비 예산 증액, 문헌정보학과, 문창과, 국문과, 관련학과 등을 통한 독서캠페인 운동, 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졸업인증제 같은 제도 도입, 교수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수법 활용,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IV. 대학생과 독서교육에 대한 논의

대학생에게는 왜 독서가 필요한 것일까. 대학생활은 물론, 졸업 후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올바른 독서법의 체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하나일 수 없는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본받을 인간상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숙(私淑)이라는 말이 있다.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사모하며 본받아서 도(道)나 학문을 닦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의 출전은 『맹자(孟子)』이다. 맹자는 공자(孔子)보다 100여 년 뒤에 태어났다. 당연히 그는 공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항상 마음속에 자신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간직하였던 것은 바로 공자의 삶이었다. 그는 이런 자신의 행위를 「사숙」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대학시절에는 훌륭한 자서전이나 인물평전을 읽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본받아야 할 삶의 길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신입생부터 4년 동안의 성공적인 생활을 위하여 대학생활을 설계하게 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독서요, 독서교육이다. 독서교육은 대학도서관이 앞장서고, 독서와 관련이 많은 학과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졸업자격인증제-독서분야」 「교양과목 학점인정 특별시험-글쓰기의 원리와 실제 I」 라든가, 명지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양독서」가 좋은 본보기이다.

강원대학교의 독서분야 졸업인증제¹²⁾는 「독서분야 운영위원회에서는 매 입학년도 별로 추천도서 100종(문학분야 50종, 사상분야 50종)을 선정하여 공고하고 졸업자격인증제 독서분야를 선택한 학생은 추천도서 목록 중 최소 40종(예·체는 계열은 25종)을 읽고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CBRT(Computer-Based Reading Test) Room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후감을 제출하고 해당 도서에 대한 확인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5문항의 문제 중 3문항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확인평가에 통과된 도서는 누적으로 관리되고, 40권 이상을 읽은 학생이 평가시스템의 종료 명령을 입력하면 인증 결과가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등재되며 필요한 졸업자격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2001학년도 입학생이 독서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계열은 30권, 예체능계열은 20권을 최소 인증 기준으로 한다.」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작문의 기초와 작문의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교양과목 학점인정 특별시험을 보고 있다.

명지대학교의 교양 독서학점 인정¹³⁾은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양인, 문화인

12) http://www.kangwon.ac.kr/korean/sub4/sub04_main.html?menu [인용 2004. 2. 6]

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며, 명저 100선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자 학점화 하였다. 매 학기 초에 읽은 서적(20권)의 목록과 독후감을 수기(자필/200자 원고지)로 작성하여 담당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한 학기에 2학점만 이수가능하며 고전세미나를 포함하여 최대 4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발표와 자율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세미나식 수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교양필수과목으로 <독서와 토론> 수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예술, 우리 학문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책읽기가 요즈음의 대학생들에게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 학기 동안 약 10여권의 양서를 의무적으로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통해,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책읽기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로 <독서와 토론> 수업을 설강하였다.」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9월 독서의 달 행사, 다독자 표창, 대학생 독후감 쓰기, 도서관 주간행사, 책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독서교육의 붐을 일으키면 좋을 것이다.

D대학교 신입생의 독서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가 시간이 생기면 주로 하는 일은 인터넷하기 17%, TV시청하기 13%, 책읽기 12%이다. 평일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TV 시청은 84%가 시청하고 46%가 30분이상 2시간미만 시청하고 있다. 라디오는 63%가 청취하지 않고 신문은 39%가 안보고 책읽기는 22%가 하지 않고 만화 읽기는 60%가 안 본다. 잡지는 61%가 안보고 비디오는 62%가 안 본다. PC 통신 인터넷은 91%가 하고 2-3시간미만 18.9%, 1-2시간미만 18.9%, 3-4시간미만 17.2%, 5시간 이상 12.8%이다.

주말에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TV는 19%가 안보고, 19%가 1-2시간 본다. 라디오는 67%가 안 듣고, (120명), 신문은 49%가 안보고, 46%가 1시간 정도 본다. 책읽기는 33%가 안하고, 만화는 64% 안보고, 잡지는 66%가 안보고, 비디오는 60%가 안보고, PC통신 인터넷은 89%가 하고, 1시간 이상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하는 학생이 약 80%이다.

평소 즐겨 보는 도서 분야 1순위로는 일반소설 45%, 2순위로는 일반소설 20%, 추리소설 14%), 무협지/환타지 소설 9%, 3순위로는 만화 13%(24명), 수필 13%(23명), 추리소설 12%이다.

책을 읽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24%, 교양을 쌓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23%,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 16%, 과제 또는 리포트를 쓰기 위하여 12%,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 12%,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9%이다.

책 읽는데 장애요인은 1순위로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았다 29%, 공부하기

13) <http://claid.mju.ac.kr/>[인용 2004. 2. 6]

바빠서 시간이 없다 17%, 컴퓨터/인터넷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16% 이다. 2순위로는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엔 바쁘다 28%, 컴퓨터/인터넷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19%,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 14%, TV/비디오 보느라고 시간이 없다 11%(20명), 공부하기 바빠서 시간이 없다 10% 이며, 책을 사 볼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 7%나 된다.

지난달에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해 보면 97%가 책을 읽었고, 58%가 1-3권 읽었다. 2.8%가 14권 이상 읽은 학생도 2.8%나 된다.

일반 도서를 구하는 방법으로 1순위로 직접 구해서 본다가 37%, 대학도서관에서 빌려본다 23%, 도서대여점 등에서 빌려 본다가 18%, 주위 사람에게 빌려 본다 16%,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본다 8%이다. 2순위로 대학도서관에서 빌려본다 35%, 도서대여점 등에서 빌려 본다가 15%, 직접 구해서 본다가 14%, 주위 사람에게 빌려 본다 13%,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본다가 12%이다. 잡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1순위로 직접 구해서 본다가 29%, 도서대여점 등에서 빌려 본다가 26%, 주위 사람에게 빌려 본다 12%,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22%,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본다가 7%이다. 2순위로 대학도서관에서 빌려 본다가 직접 구해서 본다가 같은 20%, 직접 구해서 본다가 14%, 주위 사람에게 빌려 본다가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가 같은 19%, 도서대여점 등에서 빌려 본다가 14%이다.

인터넷에서 도서정보 검색을 한다가 67%, 하지 않는다가 33%이다. 도서정보 검색을 하는 학생 중에서 36%가 주 1-2회, 59% 이상이 매일 또는 주 1-4회 도서정보 검색을 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생은 49%, 구입하지 않은 학생이 51% 이다.

전자 책(e-book)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은 37%, 이용하는 학생 중에 월 1-2회가 53.7%(36명), 주 1-2회가 25.4%(17명), 월 1회 미만인 16.4%(11명)로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은 학생이 63%(113명)이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서로는 문학관련 도서(시, 소설, 수필 등)가 33%, 실용도서(어학, 컴퓨터, 취미, 재테크 등)가 20%, 대학교재 12%, 문학 이외의 교양 도서(역사, 경제, 경영 등)가 11%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93%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13권 이상이 46%, 3-5권이 22%, 10-15권이 21%로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7%이다. 중앙도서관 이용 목적에 책 열람과 대출 67%, 자료/조사 연구 16%, 시험공부를 위한 좌석 이용 11%, 멀티 미디어 이용 6%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 이용 만족에 관한 질문에 보통 41%, 대체로 만족 40%, 매우만족이 10%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학생도 10%정도이다. 만족한 이유가 소장 자료가 많다, 책의 종류가 다양하다, 자료검색이 용이하다, 깨끗한 시설이 불만족한 이유는 도서관에 가기가 힘들다. 컴퓨터가 잘 안되는 것이다. 대여기간이 짧다. 시험기간과 주말 이용의 불가능하다. 책의 열람 순서대로 꽂혀 있지 않다. 비치되어 있어야 할 책이 없고 훼손이 많다. 신도서가 적다. 책을 찾아

도 비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많다. 책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학생들은 가장 많은 이유로 41%가 강의실이 멀다. 그리고 수업이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가 17%, 읽을 만한 책이 없다가 11%, 개관 시간이 짧다가 11%, 독서상담/안내가 없다가 6%이다.

중앙도서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을 해 본 학생이 75%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의 만족한 정도는 보통 39%, 대체로 만족 35%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 10%이다. 전체적으로 만족한 정도는 45%이다. 중앙도서관의 만족한 시설로서의 요건은 1순위로 장서보유량 56%, 개방 시간 연장 17%이다. 그 외 4개영역은 12% 정도로 비슷하다. 2순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 개선 23%, 정보화 수준 23%, 개방시간 연장 20%이다. 만족한 시설의 요건으로 장서의 보유량, 개방시간 연장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역점 사항은 1순위로 교내방송 학보, 게시판 등을 통한 독서캠페인이 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앙도서관에서의 도서관 주간, 다독자 표창, 독후감대회 독서의 달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이 32%이다.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교양서적 등 양서 구입이 17%이다. 2순위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교양서적 등 양서 구입이 24%이며, 다음으로 중앙도서관에서의 도서관 주간, 다독자 표창, 독후감대회 독서의 달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이 23%이며, 중앙도서관의 시설 개선, 전산화, 도서구입비 예산 증액이 18%이고, 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졸업인증제 같은 제도 도입이 12%이다.

학생들은 중앙도서관에서의 도서관주간, 다독자 표창, 독후감대회, 독서의 달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교양서적 등 양서 구입, 교내방송, 대학신문, 게시판 등을 통한 독서캠페인, 중앙도서관의 시설 개선, 전산화, 도서구입비 예산 증액, 문헌정보학과, 문장과, 국문과, 관련학과 등을 통한 독서캠페인 운동, 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졸업인증제 같은 제도 도입, 교수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수법 활용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V. 결론

대학교육은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다. 대학은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다. 독서를 통해서 전공은 물론 교양을 쌓아 두지 않으면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기 힘든 것이다.

대학은 보다 자유로운 창조의 생활이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스스로 도서관에서 문헌을 찾아 참고하고 연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다. 대학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바람직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루어야 할 과업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서이다. 대학생의 독서는 대학 4년의 캠퍼스 활동뿐만 아니라 장차 살아 갈 평생의 인생 노정을 결정 지어 주는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독서교육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D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여가이용, 독서경향, 도서입수, 중앙도서관 이용, TV 독서 프로그램, 독서 장려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독서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1)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주간, 책의 날, 독서의 달에 다독자 표창, 독후감 쓰기 대회, 세미나, 특강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
- (2) 문헌정보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관련 학과에서 독서교육 과목을 교과과정에 채택한다.
- (3) 대학교 4년 동안 제시된 책을 읽고 소정의 확인평가를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는 독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 (4) 대학교 4년 동안 읽어야 하는 필독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독서를 권장한다.
- (5) 대학교 4년 동안 교양독서 과목(2학점)을 채택하여 4학점을 인정한다.
- (6) 대학교 내 게시판, 신문, 방송, 홈페이지, 전자게시판 같은 매체를 통한 독서교육을 한다.
- (7) 독서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채택한다.

<참고문헌은 각주 대체함>